

1. 연구방법과 표본의 성격

金 璞 東

(서울대 사회대 교수)

崔 泰 龍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차례>

- | | |
|----------|----------------|
| 가. 표본추출법 | 다. 자료의 분석 방법 |
| 나. 자료수집 | 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이번에 실시한 표본조사는 크게 두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나는 전국 표본지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일반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표본의 추출 절차와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기법에 관하여 개관하겠다. 다만 엘리트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엘리트구조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공통된 개략만을 언급하겠다.

가. 표본추출법

본조사연구의 응답자들은 일반주민과 엘리트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일반주민의 표집에 있어서는 인구별 총화표집법, 지역별 집락표집법을 사용하여 표본지역을 뽑은 다음 각 표본지역에서 단순무작위 표집법으로써 응답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엘리트의 경우에는 표본지역의 상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지방유지들의 전체 명단(pool)을 입수한 후 이들 중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응답대상자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각 지역별 엘리트 표본추출법 및 응답대상자 선정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 동일한 원칙을 따랐다. 엘리트 선정방법은 뒤에 각 지역의 개관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며 여기에는 총괄적인 표본추출법을 소개한다.

1. 일반주민 표집방법

전국조사의 경우 표본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대표성의 정도 또한 높을 확률이 커지지만, 대체로 시간과 비용의 제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모를 택하게 된다. 대체로 이번 조사연구의 성격이나 관례에 비추어 1천명에서 1,500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한 표본규모임을 고려하여 1,200명을 목표로 표집하였다. 1,200명이란 한국의 총인구 37,436,315명(80년 현재 인구센서스결과)의 0.0032% 정도에 해당된다.

표본지역을 구하는 데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택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인구 37,436,315명 중 시부인구는 21,434,116명으로 57.3%이며, 군부인구는 16,002,199명으로 42.7%인 바 시부에서 700명(58.3%), 군부에서 500명(41.7%)를 뽑기로 하였다. 그리고 군부인구 중 읍부인구가 4,539,666명(28.4%), 면부인구가 11,462,533명(71.6%)이므로, 군부 표본수 500명 중 읍부에서 150명(30%), 면부에서 350명(70%)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군, 대도시에서는 구, 중소도시에서는 시 자체가 지역단위가 되도록 하여 1개 지역단위에서 100명의 응답자를 뽑기로 하였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7개의 지역단위를, 그리고 군부에서는 5개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도시지역의 표본추출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11월 현재 전국 40개의 도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6개이고 이들 대도시 인구는 15,591,377명으로 시부인구의 72.8%이며, 특히 서울의 인구는 8,364,379명으로 39.0%나 된다. 따라서 인구비례로만 할 경우 서울에서 3개 지역단위,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5개 지역단위를 뽑아야 하는데, 이것이 인구규모를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도시의 수는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2개 지역단위를 택하고 중소도시에서 3개 지역단위를 뽑기로 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5개 도시 중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와 비슷한 성격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대도시 중에서 2개를 뽑기로 하였다. 이들 4개 대도시는 지역적으로 충청·전라지역에 2개(대전, 광주), 영남지역에 2개(부산, 대구)가 위치하므로 각 지역에서 1개씩 뽑기로 하였다. 무작위 표집의

<표III-1> 도시지역의 표본

도 시 명		서 울	대 구	광 주	춘 천	천 안	울 산
인 구 수		8,364,379	1,604,934	727,600	155,305	120,526	418,326
구 수		17	6	3			
동 수		424	115	64	22	10	35
표 본 구	동대문구	관악구	중 구	동 구			
표 본 구 인 구	848,081	501,624	218,964	213,761			
표본구내 동수	41	24	21	43			
제 1 표본동 명	제기 1동	신림 5동	봉산동	산수 1동	소낙동	원성동	태화동
제 1 표본동 인구	26,488	16,499	9,418	8,595	5,509	18,671	9,412
제 2 표본동	전 제 2동	봉천 6동	동성동	계림제2동	호반동	신용동	북산동
제 2 표본동 인구	12,359	29,979	10,671	8,045	6,226	9,043	16,674

결과 광주와 대구가 표본시로 추출되었다.

대도시의 표본이 뽑힌 지역이 경인, 경북, 전남임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의 표본은 전국을 가능한 한 대표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도에게 3개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도시가 한 도에서 뽑히지 않도록 하였다. 표집 결과 춘천, 천안 및 울산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구를 하나의 표본지역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표집된 대도시에서 무작위 표집으로 표본구를 뽑았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관악구, 광주에서는 동구, 그리고 대구에서는 중구가 표본구로 뽑히었다.

각지역 단위에서는 무작위 추출로 2개의 동을 뽑았다. (<표 III-1> 참조) 표본동에서 응답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작위 표집법과 체계적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일단 표본동이 선정된 후 응답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각 표본지역 단위에 난수표에서 얻은 20개의 무작위 번호(random number)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서는 신림 5동과 봉천 6동이 표본동으로 되었다고 하고, 관악구에는 45, 56, 73, 8, 1, 16…등의 20개의 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두 개의 번호를 짹지어 하나의 조를 만들다. 즉 45~56, 73~8, 1~16, …등과 같이 구성한다. 이때 앞의 숫자는 통의 무작위 번호이고 뒤의 숫자는 반의 무작위 번호가 된다. 만약 신림 5동에 실제로는 25개의 통이 있다고 가정하면 통의 무작위 번호 45를 전체 통수 25로 나눈 뒤 나머지 숫자 20이 신림 5동의 첫번째 조사대상 통의 번호가

된다. 반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20통에는 15개의 반이 있다고 하면 반의 무작위번호 56을 전체 반수 15로 나눈 다음의 나머지 11이 대상반의 번호이다. 따라서 첫번째 통·반은 20통 11반이다. 한편 세번째 숫자조의 1~16의 경우 대상통은 1통이 된다. 1통내에는 16개의 반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0이 된다. 이 경우 대상반은 16통이 된다. 따라서 1통 16반이 세번째 통반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림 5동에서 5개의 통·반과, 봉천 6동에서 5개의 통·반, 즉 관악구지역에서 10개의 통·반을 뽑는다.

통·반이 정해지면, 주어진 반을 찾아가 반적부 또는 주민등록부를 보고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명단을 작성하고, 혹시 뽑힌 응답자가 면접을 거부하거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무작위추출로 표본응답자수 10명의 2배수인 20명을 추출해서 이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

군부지역의 표집은 대도시 이외의 도시지역의 표본을 고려, 표본군은 이미 표집된 도시가 속해 있는 도에서 하나씩 뽑기로 하였다. 따라서 표본시가 속해 있는 5개의 도, 즉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 도의 모든 군을 각각 따로 모집단으로 하여 1개군씩 무작위추출로 선택하였다. 표본군으로 뽑힌 군은 각 도별로 영월, 공주, 무안, 상주 및 의령군이었다(〈표 III-2〉 참조).

〈표 III-2〉 군부지역의 표본

표 본 군	영 월	공 주	무 安	상 주	의 령
읍 수	2	1	1	1	1
면 수	6	11	7	17	12
표 본 읍	영 월	공 주	무 安	상 주	의 령
표본읍 인구	31,221	43,573	12,752	48,954	12,576
제 1 표본면	서 면	의 당 면	망 운 면	외 남 면	용 덕 면
제 1 표본면 인구	9,614	8,346	13,805	5,031	4,329

〈표 III-3〉 실제 지역별 일반주민 응답자수

표본지역 단위	응답자수	표본지역 단위	응답자수
서 울 종로 구	97	서 울 관 악 구	100
춘 천 시	102	영 월 군	102
천 안 시	100	공 주 군	100
광 주 동 구	100	부 안 군	100
대 구 중 구	100	상 주 군	99
울 산 시	99	의 령 군	100

그리고 군부에서는 각각 1개 읍과 1개 면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 읍에서 30명, 면에서 70명을 면접하기로 하였다. 역시 무작위로 읍에서는 1개 동 또는 리를, 면에서는 2개 리를 뽑은 다음 도시지역에서와 같은 절차로 각각 동·리에서 개별 응답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제 면접한 지역별 응답자의 수가 1,199명이었다(표 3 참조).

2. 엘리뜨 표집법

이번 조사연구에서 관심 갖는 엘리뜨들이란 전국수준이 아닌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엘리뜨들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수준이라고 함은 시 및 군의 수준이며, 단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엘리뜨란 과도히 중앙집권화된 우리나라의 실태를 고려하여 구(區)수준에서 뽑았다.

엘리뜨의 표집은 일반주민의 경우와는 달리 서울에서 총괄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정 지침만을 마련하여, 각 조사지역에 비교적 정통한 그 지역의 조사책임자들이 그 원칙과 기준에 의거 선정하는 방식은 취하였다. 개별 조사지역에서의 엘리뜨 선정 방법은 조금씩 다르며, 뒤에 다시 언급하므로 여기에서는 모든 조사지역에 같이 적용된 대체적인 엘리뜨 표집방법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엘리뜨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그 해결, 공공결정 및 자원배분활동에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조직의 실력자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권한, 영향력 및 실력을 확인하는 기준으로는 (1) 다른 사람을 지휘, 명령, 감독하거나 대표하는 능력(조직상 기능 및 대표성), (2) 지역사회의 물질적 자원을 동원, 활용, 관리하는 능력(경제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배분 능력), (3)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및 공공시책에 참여하는 권한 및 지위(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권), 및 (4) 지역사회에서 공식지위에 관계없이 명망있는 유지로 인정받고 그의 의견을 공식지도자들이 존중하며,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인물(사회적 위광, 존경, 여론지도자)로 하였다(부록 4 참조).

실제로는 엘리뜨들을 그들의 주요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지위상으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엘리뜨로 각종 정치, 행정 단위, 정당, 군대 및 관료직에서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 (2) 지위 및 평판적 기능을 주로 가지는 사회적 엘리뜨로 언론, 사회, 문화, 사회복지, 의

사, 변호사 등 각종 사회분야의 지도인사 및 자발적 조직체의 지도자, 여론지도자, 그리고 소위 지방 유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3) 경제적 및 자원관리상의 실질적 능력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로 경제적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상·공·농·금융 등 경제산업활동의 지도급 인사 또는 유지들이다. 이 세 범주의 엘리트를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여 조사대상 엘리트의 수는 표본지역 단위당 50~60명 정도로 하였다. 일개 표본조사지역단위에서 일반주민들을 100명 정도 뽑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실제로 지역인사 중에서 엘리트를 가려내는 방법으로는, (1) 공식기구나 제도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는 이들을 선정하는 지위분석법, (2) 지역사회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 그들에게 누가 엘리트인가를 물어서 확인하는 평판분석법, 그리고 (3)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정책결정분석법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세번째의 정책결정분석법은 그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주로 지위분석법과 평판분석법을 혼용하여 엘리트를 선정하였다. 그렇게 하여 엘리트로 지적되는 빈도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많은 지적을 받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면접하였다.

실제로 각 표본지역단위에서 응답한 엘리트들의 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지역별 엘리트 응답자수

표본지역 단위	응답자수	표본지역 단위	응답자수
서울 종로구	35	서울 관악구	55
강원 춘천시	58	강원 영월군	65
충남 천안시	60	충남 공주군	59
전남 광주시	55	전남 무안군	59
경북 대구시	70	경북 상주군	57
경남 울산시	62	경남 의령군	60

나.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주로 직접면접에 의존하였으나, 특별히 만나기 어렵거나 본인의 학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응답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할 경우 자기기입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엘리트층 인사들은 실제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대상자들을 만나서 직접면접을 하기가 극히 힘든 경우

가 많았다. 그렇더라도 세번 이상 방문을 하여,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따로 인쇄한 안내문과 함께 질문서를 남겨놓고 자기기입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본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조사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서울시 동작구와 경기도 이천군 지역에서 1984년 3월 중순에 3일 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연구진의 토론을 거쳐 조사표를 수정,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1984년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약 10일간 실시하였다. 면접을 위해서는 각 조사지역의 대학생들을 선발 훈련하여 면접조사원으로 활용하였고 각 지역에는 조사지역의 교수, 조교 각 1인과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조교 각 1인씩으로 하여, 조사팀마다 교수 2인, 조교 2인 그리고 면접조사원 10인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개별면접은 1시간 내외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고, 매일의 면접이 끝난 후에 숙소에서 교수와 조교의 지도 아래 각자가 자기가 조사한 사례에 대한 편집과 부호화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면접의 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편집과 부호화를 별도로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방형 문항들은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표들을 모아서 다시 부호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일단 부호화를 마친 뒤에도 자료 입력 과정에서 생길 오차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 수정하였다.

다.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에 설치되어 있는 VAX 11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사용된 software는 주로 SPSS였다.

분석수준에 있어서는 단순빈도표, 응답자구분 즉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구분, 지역, 연령, 교육정도, 직업, 소득 등 배경변수들과의 교차표, 변량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분석의 절차는 자료의 제시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특히 일부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료의 집약 또는 타당성과 일관성의 검토를 위하여 요인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보고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좀 더 복잡한 다변수 회귀분석 같은 것은 뒤로 미루었다.

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앞서 본 조사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몇 가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용가능한 몇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계수치와 비교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도 함께 보여 주기로 한다. 전국통계의 자료는 1980년 전국센서스자료이다.

1. 지역 분포

이미 표본표집법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연구에서 표집, 면접한 응답자들의 지역적 분포는 <표 III-3>과 <표 III-4>과 같다. 이를 전국 분포와 비교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전국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표본의 지역적 분포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계
전국 인구 비율 (%)	22.3	19.3	15.6	42.7	99.9
일반 주민표본수 (명)	197	200	301	501	1,199
일반주민 표본지역비율 (%)	16.4	16.7	25.1	41.8	100.0
엘리뜨 표본수 (명)	90	125	180	300	695
엘리뜨 표본지역비율 (%)	12.9	18.0	25.9	43.2	100.0

2. 성별 분포

표집, 면접의 결과 일반주민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0.4%(723명), 여자가 39.6%(475명)이다. 이는 <표 III-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가 10%정도나 과다 대표된 것이다. 한편 엘리뜨의 경우 남자가 96.3%(669

<표 III-6> 전국인구의 성별 분포와 표본의 성별 분포

	남	여	계
전국 인구 비율 (%)	50.1	49.9	100.0
일반주민 표본수 (명)	723	475	1,198
일반주민 표본비율 (%)	60.4	39.6	100.0
엘리뜨 표본수 (명)	669	26	695
엘리뜨 표본비율 (%)	96.3	3.7	100.0

주 : 일반주민 응답자 중 1명은 무응답.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령 분포

일반주민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는 20대가 26.7%, 30대가 27.9%, 40대가 22.8%로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인구(20세 이상)에 있어 20대에서 40대까지가 차지하는 비율 77.0%와 비슷하다. 하지만 세부적 연령계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서 20세~24세 계급에 있어서는 전국비율이 19.8%인데 비하여 본조사의 표본에서는 10.8%로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반면에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연령계급에서는 조금씩 과다 대표되고 있다. 이는, 20세~24세 연령층에서는 학생 또는 군인들의 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사 실시과정에서 이들과의 면접이 어려우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후보표본명부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던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엘리뜨 응답자에 있어서는 40대가 36.6%, 50대가 39.6%, 60대 이상이 17.8%인 바,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7> 전국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표본의 연령별 분포(20세 이상)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세 이상	계
전국 인구 비율 (%)	19.8	15.0	12.3	10.8	10.4	8.7	6.5	5.5	11.1	100.1
일반주민 표본수 (명)	129	190	198	137	144	130	106	60	104	1,198
일반주민 표본비율 (%)	10.8	15.9	16.5	11.4	12.0	10.8	8.8	5.0	8.7	100.0
엘리뜨 표본수 (명)	1	2	13	26	86	168	148	127	124	695
엘리뜨 표본비율 (%)	0.1	0.3	1.9	3.7	12.4	24.2	21.3	18.3	17.8	100.0

주 : 일반주민 응답자 중 1명은 무응답.

4. 직업 분포

일반주민 응답자의 직업분포에 있어서 농림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아 각각 33.2%와 27.4%를 차지한다. 반면 관리직이 가장 적어 7.5%이다. 그리고 생산직이 11.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참고로 제시한 전국센서스자료와는 상당한 상위점을 보인다. 반면 엘리뜨 응답자의 경우에는 관리직이 가장 많아 56.6%로 절반이 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 전문기술직이 25.0%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생산직은 단 1명으로 0.1%에 불과해 엘리뜨의 성격이 대체로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III-8〉 전국인구의 직업별 분포와 표본의 직업별 분포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직	농· 어업직	계
전국 인구 비율 (%)	4.6	1.1	9.5	28.1	19.1	37.6	100.0
일반주민 표본수 (명)	79	56	76	83	204	247	745
일반주민 표본비율 (%)	10.6	7.5	10.2	11.1	27.4	33.2	100.0
엘리뜨 표본수 (명)	169	383	71	1	28	25	677
엘리뜨 표본비율 (%)	25.0	56.6	10.5	0.1	4.1	3.7	100.0

주 : 응답자 중 직업이 있는 사람만 포함됨.

5. 학력별 분포

일반주민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가 3할 정도로 가장 많고 중학교 및 국민학교의 졸업 또는 중퇴자가 각각 2할 정도로 비슷하다. 고등교육을 받아본 응답자의 비율도 약 2할 가량이 된다. 이에 비해 엘리뜨 응답자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71.3%로 3/4 정도나 된다. 반면 엘리뜨 응답자 중 국민학교 졸업 이하자도 4.8%나 된다는 것도 흥미있는 현상이다.

〈표 III-9〉 응답자들의 학력별 분포

	무학	국민학 교졸업 /중퇴	중학교 졸업 /중퇴	고등학 교졸업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계
일반 주민 표본수 (명)	92	271	248	342	95	139	11	1,198
일반주민 표본비율 (%)	7.7	22.6	20.7	28.5	7.9	11.6	0.9	99.9
엘리뜨 표본수 (명)	6	27	32	134	70	293	132	694
엘리뜨 표본비율 (%)	0.9	3.9	4.6	19.3	10.1	42.2	19.0	100.0

주 : 일반주민, 엘리뜨 응답자 중 각 1명씩 무응답.

6. 소득별 분포

조사연구에서 응답자의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 추세는 알 수 있다. 일반주민 응답자의 경우 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0.3%로 절반이 넘는다. 이에 비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한편 엘리뜨 응답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이 30.3%로 약 1/3 가량이 되는데 반해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5.5%로 일반주민 응답자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표 III-10〉 응답자들의 소득별 분포

	20단위 미만	20~ 30단위	30~ 40단위	40~ 50단위	50~ 70단위	70~ 100단위	100~ 150단위	150단위 이상	· 계
일반주민 표본수 (명)	304	291	230	168	101	52	32	7	1,185
일반주민 표본비율 (%)	25.7	24.6	19.4	14.2	8.5	4.4	2.7	0.6	100.1
엘리트 표본수 (명)	17	20	58	107	145	125	88	117	677
엘리트 표본비율 (%)	2.5	3.0	8.6	15.8	21.4	18.5	13.0	17.3	100.1

주 : 일반주민 응답자 중 14명이 무응답이며, 엘리트 응답자 중 18명이 무응답이다.